

다니엘 46 강

다니엘서 12 장 1 절부터 몇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을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담고 그 책을 봉하라. 그 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2 장은 '그때에' 로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다니엘서의 결론이 '그때'입니다. 11 장에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봤죠? 12 장의 그때에는 11 장의 연속이죠?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닥칠 대환란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는 11 장 36 절에 보면 자기 뜻대로 행했죠? 그런데 이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미카엘에 대해서 우리 10 장에서 봤죠? 가브리엘이 내려 오는데 페르시아 국군이 결국 그를 막았지만 최고 통치자 중의 하나인 미카엘이 도와줬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는 천사장이죠? 군대 장관입니다. 실지 지상에 있는 어떤 통치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늘에 있는 실제적인 통치자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사단의 정사들이 통치하지만 이스라엘은 미카엘이라는 통치자가 통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고 영적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 장에 가보면 바로 이게 똑같이 연결이 되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6~12 장은 다니엘 12 장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 장 7 절에 가보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아가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여인 이스라엘이죠?)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 받으려 함이더라.(다니엘서에 나오죠? 1260 일, 후 삼년반이죠?)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또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이스라엘이죠?)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바로 성령이죠.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레미야 30 장에 가보게 되면 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퍼즐처럼 흩어나가지고 여기저기 맞춰보지 않으면 못깨닫게 해놓았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깨닫지만 설교 한편 듣고 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다른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예수 자기에게 축복하는 예수, 자기 배를 불러주는 예수, 자기 사업을 잘되게 하는 예수, 잘못된 예수를 믿죠? 예리미야 30 장 6,7 절 보세요. **[너희는 이제 물어버리.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없죠?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 남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이 올때 배를 잡고 그러는 것처럼 남자들이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얼굴이 창백하게 된다. 이게 어떤 일이냐? 7 절 [슬프도다!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한 이레 동안에 대환란 7 년에 후 삼년 반에 그들이 받을 그 고난 이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추려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할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계획을 세운거고 다니엘서 1 장부터 11 장까지는 결국은**

12 장의 대환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한권 쫓는데 공부를 안한단 말이지요. 참 나중에 가슴을 칠 일이죠. 결국 대환란 기간은 고난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대환란때 당하는 고난을 진통하는 여인처럼 비유했죠? 그리고 이때 고난이 얼마나 심하던지 민족이 있게 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서술합니다. 히틀러 때 600 만 죽인건 저리가라죠. 이런 고난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를 통과한다는 사람은 보통 용감한게 아녜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죠? 알면 용감할 수 없어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다. 이거 누가 이야기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4 장 21 절에 대환란 얘기하실때 그때 얘기하셨어요. 24 장은 대환란 얘깁니다. 이걸 지금 갖다 붙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또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갖다 붙여 가지고 아아 밴 자와 젓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 교회에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화가 있다. 이렇게 엉터리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대환란의 때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를 못하는 거죠. 대환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얘기할 것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환란은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두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그전에 휴거된다는 것! 확실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지 뭐 느낌이 아니예요. 기도하다가 뭐 환상 본거 아닙니다. 성경이 환상이죠? 또 휴거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진압하시고 대환란을 끝낸 다음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 이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세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세지는 너희들 이거(대환란) 있으니까 빨리 예수님 믿어라. 우리에게 주는 메세지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거나 잘못 푸는 사람은 new world order 를 알리는 사람과 다름 없어요. 왕국을 부인하는 사람은, 주님의 왕국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단의 종들이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좋은 신학교 나왔어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사단은 신학교에 와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했지만, 저도 신학교 갔을때는 배운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지금까지 나는 내가 배운것에 목숨을 못내놓겠더라고. 칼이 목에 들어올 때 못하겠더라고. 진리가 없으니까, 그때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받은 거거든요. 몇년 동안을 두문불출하고 이 말씀을 배운 거예요. 주기도문에 왕국(kingdom)이 임하옵시며, 킹덤을 나라로 해놓으니까 감이 안잡히는 거예요. Thy kingdom come 인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단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new world order, new age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결과가 되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호세아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죠? 오늘날 주의 종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면 괜찮아요. 자기가 소경이 되가지고 다 성도들을 소경으로 만드는 거야. 둘다 구렁이에 빠진다고 했거든요. 기가 막히는 거야. 뭐 기도만 많이하면 된다고 하는데 말씀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게 기도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게 기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것은 내가 궁핍해도 아 주님이 내 사정 다 아시니까 걱정 안합니다. 이게 기도지, 나 돈 좀 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고 했거든요.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안받으세요. 엉뚱한 기도들 하고 있단 말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보면 엉뚱한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울며 불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 하는 기도가 말씀없이 몇 시간 하는 기도보다 나은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다 들어 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것처럼, 미카엘이 마귀를 쫓아 내잖아요.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였죠? 마귀를 멸하는 거죠. 죄를 가져와서 이 땅을 통째로 먹어버렸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자기 수중에 집어 넣어서.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그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먼저 쫓아내는 거예요. 대환란때 완전히 쫓겨나죠. 3 층천에서 2 층천으로 쫓겨 났어요. 그런데 대환란때는 2 층천 우주 공간에 있는 마귀의 권세들이 이 지구로 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서 가지고 마귀를 붙잡아 가지고 무저갱 속에 쳐넣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에 잠깐 꺼냈다가 잠깐동안 시험하게 해서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미리 환란 끝에 들어가 있지만 마귀는 한번 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천년동안 무저갱속에 있다가 다시 올라오게 해가지고 다시 시험하게 해서, 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혼자서 잘먹고 잘사는 거죠.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는 사람이 천년동안 사는데 100 살에 죽으면 어린아이라 그러는데 건강하고 애도 쑥쑥 잘남는데 얼마나 교만해져 있겠어요. 그래서 곡과 마곡, 즉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이 통치한다고 해도 안 믿는 거야. 오히려 새예루살렘성과 유대인들을, 하늘에 있는 새예루살렘성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도성을 공격하려고 모여 오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영원으로 들어가고 마귀도 영원히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가지고 온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마귀의 일은 죄와 사망이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죽으신 거야. 죽으셔야만 죄를 멸하잖아요? 모든 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멸한 것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 나시니까 사망을 멸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 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사람 볼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걸 정말 기가 막힌 얘기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또 나를 의롭게 할려고 살아 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크리스찬들 아닙니다. 다니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죠? 그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걸 어디 있냐? 또 하나님이 흠어 뵈어요. 말라기 3 장 16,17 절. 이거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남은 자들이예요. 진실한 남은 자들이죠. **[그때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을 만드는 그 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기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 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보물이라고 했죠? 땅에 숨겨진 보화같다. 지금 땅에 숨겨져 있죠? 몰라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대부분의 개신교들이, 90% 이상이 몰라요. 다 신학교에서 대체신학(Replacement Theology)을 배워서. 이스라엘은 이제 소망이 없고 망했다. 예수 죽인 나쁜 놈들, 망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우리에게 왔다. 그래가지고 대체신학이라는 신학을 배우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신학교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외에는 전부 그렇게 알죠. 장로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게 바로 그거예요. 다 넓은 문으로 들어 가니까 사람이 많죠. 환영을 받죠.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길이라고 했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망길 이라고 했어요. 쉽죠. 아주 쉽습니다. 2 절 보니까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말할 때 땅에서 잠잔다고 말하죠. 그래서 부활을 말할 때 주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 장

16~18 절에 있죠? 영원한 생명을 받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받는 부활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부활은 휴거. 휴거 때 영원한 생명을 받는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환란 끝에, 천년 왕국 이르기 전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목베임을 받은 사람들도 결국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죠(계 20:4). 결국 천년왕국 이전에 받는 부활은, 신약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이 받는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요 천년왕국 끝에 백보좌 심판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죠. 물에 빠진 사람은 물위에 있는거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있고. 왜냐면 양심 시대에 죽은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양심 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는 없어요. 자세하게 얘기는 못해요. 왜? 성경에 있는 만큼만 알아야 되요. 더이상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교리만 확실히 알면 되요. 뭐 옛날에 율법을 받기 전 노아 때,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 자꾸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씀에 나타난대로 자기 스스로 알면 되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풀면 잘못되게 되죠. 3 절 보니까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이 환란때도 전도해 가지고, 그때는 은혜복음이 아니죠? 왕국복음이죠? 이제는 주님이 오신다. 회개하라. 옛날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6 개월 전에 그렇게 한 것처럼 그때도 똑같은 천국 복음 더이상 은혜복음이 없어요. 성령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때도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사람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한 사람은 별들처럼 빛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들은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명한 자들이다. 철학자들이 자기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필라서퍼(Philosopher)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서의 지혜는 잠언 11 장 30 절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나와요. 철학자들이 아녜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우리 구원이 혼의 구원이라고 했죠? 혼들을 이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winning soul 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전도라 하고. 그러니까 마귀, 세상에 속해 있는 soul 을 복음으로 우리가 이겨와서 그들이 복음으로 이겨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빠져 나오는 거죠. 이겨 오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싸워 이겨오는 것입니다. 영적전쟁에서 싸워 이겨오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는게 쉬운게 아녜요.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기 쉬워요? 아이구 죽기보다 어렵죠? 혼을 이겨오는 자, 이 사람이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성령이 뭐라 그랬죠?

지혜의 영이라고 했어요. 명철의 영. 성령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설명해줘도 소용없어요. 사영리 가지고 아무리 많이해도 안되요. 사영리 가지고 아무리 한들 그 사람을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설명을 해가지고 아 그럴듯하다. 불교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전도해요. 사영리 가지고 저기 이스라엘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통하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다니엘서 가지고 해야돼요. 너 다니엘서 믿지 않느냐? 왕국이 임하지 않느냐? 또 복음서 가지고 할려면 마태복음 가지고 해야돼. 그래서 전도자들이 다니엘서를 히브리말로 번역을 해냈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을 히브리말로 번역해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가보니까. 다시말해서 구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명한 거죠? 바로 코앞에 있는 유익보다도 영원한 세상의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그날에 대하여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투자할 때 바로 코앞에 있는 것 보지 않고 멀리 보고 해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몇 십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하면 당장 주식에 투자해 가지고 왕창 망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지혜로워야 합니다. 멀리 봐야 해요. 그날에 내가 정말 어떤 곳을 차지할 것인가? 어떤 리턴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투자고 그때 가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 가지고 주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과 영원히 살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갔을 때 백인들도 고맙다 그러고 흑인들도 고맙다 그러고 유대인도 고맙다 그러고 히스패닉,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고맙다고 해요. 중국 신앙에 가서 공항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휴 대학생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일보다가 얘기를 했더니 듣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놀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최초로 누구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었던 그날을 그 기쁜 날을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한다. 아들이 복음 전해서 구령을 했어요. 그리스도께 인도했어요. 그때 그렇게 기뻐했다고 간증하는 분이 있더라구요. 저도 우리 아들이 그러면 굉장히 기쁠것 같아요. 허허. 무엇보다도 기쁠 것 같아요. 디엘 무디가 한 사람 전도해 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다 팽개치고 전도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때요 막 눈물이 나고요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아무도 못뻗어가요. 여러분 소드 오브더 로드(Sword of the Lord)라는 선교 기관이 있어요. 주의 칼이다. 거기 존 라이스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이 분을 어떻게 아냐면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해 가지고 코비나에 있을때 210 번 프리웨이를 계속 달렸어요. 그때 아케디아에 살았는데 프리웨이에 빌보드가

많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건 팔아먹으려고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빌보드에 한 달에 5천불씩 내는데, 지금은 얼마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복음 전하는 빌보드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 큰 교회 돈 많은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아 예수 믿으라는 빌보드는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런데
 멕시코 엔세다네에 갔는데 있더라구요. 아 그러구서 며칠 후가 됐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빌보드에 Sword of
 the Lord coming soon. 주의 칼이 곧 오신다. 이게 써져 있는거예요. 조금 더 달리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Believe in Jesus Christ)가 있더라구요. 그 목사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일곱가지를 설교한게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나 좋은 메세지이기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계명에 대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일, 전도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 내는 일에 게을리 하는것이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가 오셔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가는 혼들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에
 사랑하라는 계명밖에 없어요. 율법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다 감당했고 우리는 사랑하면 되요.
 사랑하는 사람은 십계명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걸(십계명) 이미 초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에 대해 증거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뭐죠?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세째 날에
 살아나셨다는것!** 이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 안 전하면 되겠어요? 혼을 이겨오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핵심이죠. 마음만 먹으면 안 전하고 못 베풀어요.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은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이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가기전 사업 할 때도 누굴 만나면 이 사람이 도대체 구원 받았나?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 후 다른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차타고 가다가 멈추면 옆에 차에 문열라 하고 지옥가지 않으려면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천국간다. 이러면 땡큐하고 가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난 몰라요. 난 복음을 심었으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너 전하라 할때가 있어요. 두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처절하게 피흘려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 가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날강도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업신 여기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죠. 셋째로 불순종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죠? 사람을 낚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사람을 낚기 위해서죠. 결국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거죠. 구원은 받았어도. 네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죄예요. 주님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 안에서 그분과 교제를 유지한단 뜻이죠.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지금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내가 그 안에 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거하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여기에 게으르다면 그 순간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불순종의 죄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이미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12 사도에게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위임하셨죠? 이것 하지 않으면 부정직한 독직 행위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같은 죄인들에게 그런 엄청난 복음을 위임하셨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늦게 오시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 복음만큼 위대한 소식은 절대로 들어보지 못할 거예요. 이거보다 위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나때문에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위대한 소식이고 복음이죠. 이것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망각하고 사는 시간이 더 많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주의 성만찬할 때 이 두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주의 살을 상징하는 무교병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하는 겁니다. 무슨 종교행위로 하는게 아니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임 때마다 했어요. 그들이 모이는 목적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는 것 이전에 성만찬 할려고 모인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들은 매일 전도했거든요. 매일 전도하니까 매일 모여서 매일 (성만찬)했거든. 매일 잊지 말자고.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거든요. 그렇죠? 참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느슨하게 됐습니까? 부활이란게요, 참 우리가 장례식 가서 시체가 매장될 때 콘크리트 속에 관이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오실때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부활한다는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장례식에 꼭 가야 되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꼭 그 말씀을 전해요. 휴거 메시지를 꼭 전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고린도전서 15 장 51 절부터 55 절, 데살로니가전서 4 장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영원히 무덤에 갇혀 있는게 아닙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질그릇같은 우리의 몸속에 가졌다. 참 얼마나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섯 번째는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은 영적 살인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이? 그러므로 오늘 내가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주었음이라. 사도바울이 그랬죠?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죠?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했던 애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에스겔서 3 장 18 절보면 무슨 말씀있어요? **[네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전도 안한다고 지옥가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죠. 전도를 하면 기쁨의 면류관을 받아요. Crown of joy, 이게 구령한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이죠? 사도바울은 이 에스겔서를 그대로 인용한거나 마찬가지로요. 네 손에서 피를 요구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선언한 사도바울.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의에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교만한게 아닙니다. 죽기 전의 유언이죠. 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도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갔으니까. 별들처럼 빛난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어리석음의 죄다. 처음에 혼을 이겨오는 사람은 지혜롭다 그랬죠? 다시말해서 혼을 이겨오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결국 그 사람이 현명하냐 어리석냐? 는 그가 혼을 이겨 오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 재정이 많아지면 빌보드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십몇 년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가까움)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기도제목입니다. 우리한테 주시면 할거예요. 남들이 안하니까. 한 사람도 안하잖아요? 얼마 전에 요기에 이사야 53 장이라고 누가 글을 써놨더라구요. 그런데 돈이 없었는지 금방 없어지더라고. 아 누군가? 궁금했는데. 오직 답답하면 축구 선수가 얼굴에다 요한복음 3 장 16 절 써가지고 경기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 아들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한번 마음을 다지게 하시고 다시한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복된 소식을 전할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짐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세계 방방곡곡에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